

글로벌 시민성의 관점에서 본 대학생 해외자원봉사:* A대학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연구

김 찬 란** · 이 선 미***

본 연구는 A대학의 대학생 해외봉사프로그램을 다녀온 학생들에 대한 설문을 기초로 대학생 해외자원봉사의 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대학생 해외자원봉사의 효과는 글로벌 시민성, 인성변화, 역량개발 등의 세 가지 관점에서 측정되었다. 분석 결과, 대학생 해외자원봉사는 글로벌 시민성 증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이 인성적 변화였고, 직무역량면에서의 효과가 가장 낮았다. 또한 분석 결과, 글로벌 시민성 효과를 예측하는 데 가장 의미있는 변수는 개인도구동기임이 밝혀졌다. 이론적으로 볼 때 이는 대학생들이 취업이나 경력, 역량 개발 등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자극히 개인주의적이고 도구적인 관점에서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글로벌 정의(global justice)의 관점에서 부정적으로만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오히려 그런 개인도구적 동기라도, 동기가 강할수록 해외봉사의 실천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관심이나 다문화적 이해, 공동체 의식 등의 글로벌 시민성 증대 효과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 글로벌 시민성이 단순하게 자유로운 국경간 이동이나 단순한 글로벌 소비주의의 확산으로 이해되지 않고, 국가 간, 특히 부국-빈국(Global North-South) 간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 글로벌 공동체 의식을 지향해야 한다고 할 때, 대학생 해외봉사활동은 이러한 글로벌 시민성 교육에 기여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주제어: 대학생 해외자원봉사, 글로벌 시민성, 인성, 자원봉사 동기

* 이 연구는 2011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서울여자대학교

*** 서울여자대학교, 교신저자

1. 서론

대학생 해외자원봉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대학생 해외자원봉사는 어떤 교육적 효과를 갖는가? 대학생 해외봉사활동이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지식과 기술의 이전이라는 고유의 목적에서 벗어나, 급속히 개인 역량 계발의 관점에서 도구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두 관점이 병존 불가능한가? 해외봉사를 떠나는 대학생들의 이기적, 도구적 동기가 국제사회가 해외자원봉사에 기대하는 글로벌 시민성 증대라는 효과에 부정적인 것인가?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이전만이 아니라 글로벌 남-북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포용력과 글로벌 정의(global justice)의 관점을 배워가는 글로벌 시민성 교육을 포괄한다는 전제 위에서, 아직 전문성이 낮은 단계에 있는 일반 대학생의 해외자원봉사도 글로벌 시민성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아 결국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생 해외자원봉사의 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해외봉사활동은 일반적으로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의 일환으로 ‘가난한 나라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시혜’라는 관점에서 ‘지식과 기술을 이전’하는 활동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종교단체들의 소규모 봉사활동을 제외하고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한국청년해외봉사단을 파견하기 시작한 1990년이 해외봉사활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1990년대 중반에 여러 기관에서 해외봉사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다가 1997년 말 IMF 위기 이후 거의 중단되었으나, 최근에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민간사업 중 가장 크고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세계청

년봉사단'(KOPION)사업으로 연간 100명 정도씩을 선발해 제3세계 NGO들에 파견하고 있다. 그 외에도 대표적인 것을 들면, 한국해비타트의 '글로벌빌리지 프로그램'이나 국제워크캠프(IWO) 등을 들 수 있다. 후자는 전세계 70여 개국을 대상으로 청년들을 파견하여 환경, 농업, 건설, 사회사업 등의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있다. TV 매체를 통해 소개되기도 했던 우프(wwooof)의 경우는 외국인 농가에 들어가 평균 4~5시간의 노동의 대가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받으며 생활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국제구호개발NGO를 비롯하여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학생, 중·고생을 대상으로 중·단기 해외봉사 혹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단체 외에도 G마켓해외봉사단, 해피무브 등 기업이 주관하는 해외봉사 프로그램도 등장하였다.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청년들의 해외자원봉사는 가난한 나라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식과 기술을 이전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일견 의미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청년 대상의 중·단기 해외봉사프로그램과 KOICA 해외봉사단 간에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후자는 초기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해외봉사활동이 목적했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이전에 부합하는 전문가들을 파견하는 반면, 전자는 전문적 기술이 없는 사람들의 단순 봉사활동을 조직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그렇다면 대학생 해외봉사활동의 의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 연구는 대학생 해외자원봉사의 의의와 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대학생 해외자원봉사활동은 UNESCO나 국제구호개발NGO 등과 대학이 연계하여 진행되기도 하며, 대학 자체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 연구는 대학이 학점과 연계하면서 저개발국가에서의 활동처를 발굴하여 활동내용을 기획하고 직접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A대학에서 2011년 겨울 혹은 여름 해외봉사프로그램을 다녀온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대학생 해외자원봉사활동이 글로벌 시민성(global citizenship) 교육의 관점에서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최근 코스모폴리타니즘(cosmopolitanism) 담론이 다시 확산되면서 자신의 민족/국가를 넘어 자유롭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자유부동하는 초국적 인간형이나 다중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한편, 이러한 논의가 사실상 국가 간 불평등이나 글로벌 정의(global justice), “멀리 있는 낯선 사람(distant stranger)에 대한 돌봄” 등(Nowicka and Rovisco 2009)에 대한 관심을 도외시하는 경향을 낳고 있다는 우려도 등장하고 있다.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저자에 따라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크게 철학적이고 규범적인 세계관, 초국적인 제도, 다중적 정체성, 행위 지향성과 태도 및 역량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¹⁾ 이 연구는 자원봉사자의 행위 지향성과 태도 및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와 가난한 나라 간의 상호의존성 인식 위에서 다른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관심 위에서 공동체 의식이나 세계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형성해가는 것, 나아가 다문화적 적응력을 갖게 되는 것 등이 또한 주요 관심사이다. 대학생 해외봉사 경험이 이러한 글로벌 시민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또한 어떤 요인들이 이러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대학생들의 해외봉사 경험이 글로벌 시민성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면, 비록 그들의 활동이 비전문적인 단순노동이라 엄격한 의미에서 국제개발협력

1) Vertovec and Cohen(2002, 8-22)은 코스모폴리타니즘이 다루어지는 방식을 크게 6가지로 나누는데 (1) 사회문화적 조건, (2) 철학 혹은 세계관, (3) 초국적 제도를 만들려는 정치적 기획, (4) 다중적 정체성을 인정하려는 정치적 기획, (5) 태도 혹은 성향적 지향성, (6) 실천과 역량의 양식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위지향성과 태도가 업무 역량과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5)와 (6)을 하나로 통합하여 다룬다.

을 위한 기술과 지식 이전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할지라도, 보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글로벌 시민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자원봉사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자원봉사의 개인적 효과보다는 사회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자원봉사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인격적 성장과 만족, 그리고 보상 등외에도 그들이 속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원봉사가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원봉사가 이타주의, 즉 개인적인 희생을 치르면서도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희생에 기초한 이타주의는 일차적으로 개인 간에 자원 재분배의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그 이상이다. 자원봉사의 사회적 효과를 다룰 때 꼭 등장하는 것이 신뢰인데, 자원봉사가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며 역으로 사회적 신뢰가 강한 사회일수록 자원봉사가 증가한다는 연구들 때문이다. 사회적 신뢰는 개별 구성원들 간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상호호혜성과 협력을 강화하여 결국 경제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이론적 전제(Putnam 2000) 위에서 볼 때, 자원봉사와 신뢰 간의 긍정적 관계는 자원봉사가 자원봉사자의 참여 동기와는 다른 의도치 않은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와 수혜자 간의 신뢰, 자원봉사자 간의 신뢰, 나아가 자원봉사자가 속한 봉사조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간의 신뢰를 강화시킨다. 이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와의 관련성 외에도, 자원

봉사는 대표적인 시민참여의 한 유형으로서 전체 사회의 사회적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즉 자원봉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넘어서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그 사람들 사이에 일련의 규범과 의무를 공유하게 하고, 그것은 곧 전체 사회의 신뢰 형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Paxton 2007; Offe 1999). Uslaner (2002)는 시민참여의 다양한 유형 중, 자원봉사와 기부가 사회적 신뢰 형성에 가장 기여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진행과 함께, 역으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 혹은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도 등장하여, 이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일방적이라기 보다는 쌍방향적이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하였다(강철희 2007). 자원봉사와 신뢰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로는, 개인의 특성, 관계의 속성, 나아가 환경적 상황 등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의 교육수준, 직업적 지위, 소득 수준 외에도 연령이나 성별 등이 개인적 특성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중에서도 특히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자원봉사를 위한 동기부여가 될수록 신뢰 형성에의 효과가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Rosenthal et. at. 1998). 자원봉사 중에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들의 속성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수혜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가의 여부, 자원봉사를 같이 하는 멤버 혹은 리더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원봉사 중에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의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적 상황은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는 맥락으로서, 단순 노력봉사, 교육봉사, 문화봉사 등의 상황이 위에서 언급한 사회적 관계와 개인적 변수들이 작동하는 환경적 조건으로 작동한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의 지속성 여부와 관계되는 독립변수로 다루어지고 있으나(Wilson and Musick 1999), 이는 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서구를 중심으로 해외자원봉사

에 대한 연구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해외봉사지에 머무는 동안 자원봉사자들의 봉사가 가져올 -지식과 기술의 이전이라는 의미에서의- 국제적 공평성(global equity) 증진뿐 아니라, 귀국 후 자원봉사자 개인이 얻게 될 전문가로서의 역량 증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Lewis 2006; Simpson 2004). 해외자원봉사가 저개발국의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나, 해외자원봉사자의 동기(Rehberg 2005)나 그들이 해외 체류 혹은 귀국 후에 경험한 개인적 변화들에 대한 연구(Jones 2005; Simpson, M. 2004), 기업적 관점에서의 이윤증대에의 효과나 효과적 CSR 방안 등이 연구관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활동가의 관점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외자원봉사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상대적으로 해외봉사의 의의나 효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제3회 자원봉사컨퍼런스에서 바람직한 해외자원봉사관리방안에 대해 논의되기도 하였지만, 학문적인 관심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보다 실천적 관점을 중시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서비스 러닝(Service Learning)”이라는 관점에서 해외자원봉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다. 이외에도 흥미로운 것은, 관광학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자원봉사와 여행을 결합시킨 “volunteer-tourism”의 개념이 등장하여, 해외자원봉사가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Simpson 2004).

이런 배경 속에서 Smith and Laurie(2011)의 연구는 매우 의미 있다. 그들은 해외자원봉사 전개의 역사적 과정을 추적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초기 해외자원봉사는 선교활동, 제국주의, 탐험, 청년하위문화 등의 맥락에서 진행되었고, 20세기 후반에는 저개발국가에 대한 기술 및 지식 이전의 관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후 해외자원봉사자의 파견은 저개발국의 개발 산업에의 참여하기 위한 일종의 통과의례로 할

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개발국에서의 해외자원봉사가 자원봉사자 개인의 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믿음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Smith and Laurie(2011)는 최근의 경향, 즉 해외봉사가 “gap year”²⁾ 관점이나 기업의 전문적 인재 관리 관점에서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부자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의 지식과 기술 이전이라는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없다는 주장에 반대하면서, 해외자원봉사를 둘러싼 최근의 경향이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신자유주의와 굿거버넌스 관점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해외자원봉사가 이루어지는 담론적, 제도적 세팅에 주목하면서, 상품화되고 개인의 역량개발에 초점을 맞춘 해외자원봉사의 “신자유주의화”가 어떤 사회적 기능을 갖는지, 글로벌 시민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Smith and Laurie가 언급한 역사적 흐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시적으로 발견된다. 저개발국의 개발 산업에 참여하기 위한 일종의 통과례의 관점은 해외봉사단 파견이 ‘자원전쟁’의 관점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피력하는 미디어 홍보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³⁾ KOICA 등에 의한 전문자원봉사자 파견이 주로 저개발국으로의 기술 및 지식 이전의 관점을 강조한다면, 최근 급속히 증가한 대학생 해외봉사활동은 주로 자원봉사자의 개인적 역량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해외자원봉사의 급속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해외자원봉사가 수혜국가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2)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에 진학하기 전이나, 직장을 그만두고 새 직장을 찾기 전 1-2년 기간 동안 해외경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높이는 활동을 의미한다.

3) “충성 없는 전쟁. 대외원조전쟁” (2006.11.19) <KBS 스페셜>.

연구한 이창호(2010)의 연구나 해외봉사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담론분석을 시도한 백지훈·류경화(2009)의 연구가 나온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백지훈·류경화(2009)의 연구는 해외봉사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해설자의 내러티브를 통해 가난과 저개발에 대한 지배적인 담론의 재생산뿐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갖는 특징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해외봉사활동이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저개발국의 빈곤 문제를 국제사회의 불평등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보고 봉사자와 부자국가의 자기성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방법 및 연구질문

본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학생 해외자원봉사의 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타주의가 아닌- 학생 개인의 역량계발에 초점을 맞춘 대학생 해외봉사활동이 글로벌 시민성 증대의 효과를 갖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설문조사는 2011년 1-2월과 7-8월 사이에 A대학에서 대학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해외봉사활동(해외체험활동 포함)을 다녀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각 3월과 9월에 이루어졌고, 최종 분석에 사용된 설문은 총 97 사례였다. 해외봉사활동은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저개발국가에서 이루어졌고, 국가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약 3주간의 일정으로 1주는 해당국가 대학생과의 교류활동을, 10일 정도는 봉사활동을, 나머지 일정은 여행으로 구성되었다.

이론적 배경에서 다른 여러 관점들 중, ‘자원전쟁’의 관점은 국가정

책의 철학과 관련된 문제라고 했을 때, 해외자원봉사의 효과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그 하나는 글로벌 정의에 기반을 둔 개발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글로벌 시민성 증대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역량개발을 통해 직업 준비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 외에 분석적으로 인성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구분하여 다룰 수 있다. 자존감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심 등의 인성적 측면에서의 변화는 글로벌 시민성과도 관련되며, 동시에 직업 역량개발과도 관련되지만 분석적으로는 구분하여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⁴⁾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독립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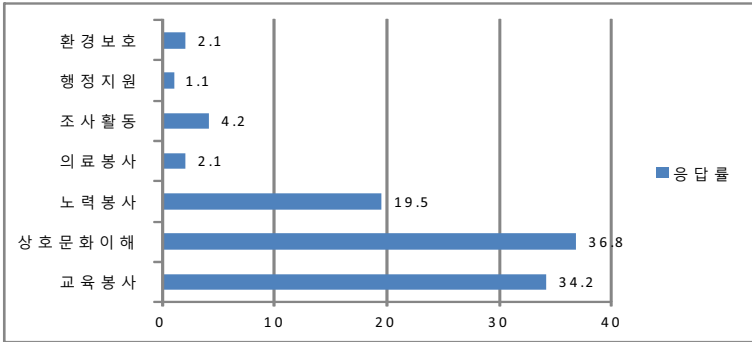
	유효사례수	척도	N/평균	표준편차
해외봉사유경험자	97		14명	
6개월이상해외체류경험자	97		8명	
해외여행경험자	97		58명	
국내외국인만남경험	97		59명	
현지인접촉빈도	96	1.전혀없음 -4.매우빈번	3.69	0.529
전공활용도	96	1.전혀활용못함- 5.적극활용	3.56	1.054
준비도(8문항,평균)	97	1.전혀아님 -5.매우그렇다	2.80	3.025
사전준비의 효과	96	1.전혀도움안됨- 5.매우도움됨	4.35	0.710
만족도	96	1.매우불만족 -5.매우만족	4.58	0.643

4) 물론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모두가 글로벌 직무역량(global competency)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를 분석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고, 따라서 직무역량 개념은 태도나 가치관보다는 도구적이고 기술적인 면에 한정하였다.

전체 97명의 유효사례수 중, 2011년 대학프로그램 참여 이전에 이미 해외봉사 경험이 있던 학생은 총 14명으로 14.4%에 해당한다. 또한 6개월 이상 해외체류 경험이 있는 사람은 8명으로 소수에 불과하였고, 해외여행경험자는 58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해외여행이나, 해외체류경험, 나아가 국내에서 외국인을 만나본 경험 등이 학생들이 실제 해외 자원봉사 기간 동안 외국인과의 만남을 통해 무엇을 배우는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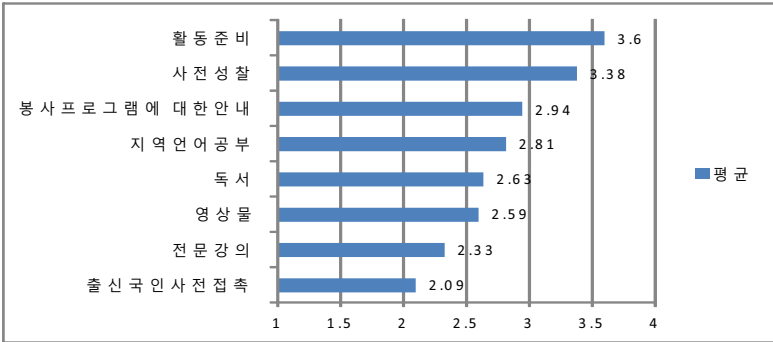
또한 해외자원봉사활동 기간 중 현지인을 얼마나 자주 접촉했는지는 환경적 상황과 관계적 속성을 동시에 알아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인봉사를 했는지, 행정지원을 했는지 등 자원봉사 활동내용뿐 아니라 수혜국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번 조사 대상의 경우, 해외봉사기간 중 현지인 접촉빈도는 3.69로서 많은 편에 해당한다. 전문 기술이 없는 대학생 봉사이기 때문에 주로 교육이나 단순노력봉사가 많았고 따라서 현지인 접촉빈도가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A 대학 프로그램의 경우 현지 대학생들과의 교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높은 현지인 접촉빈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지인접촉빈도가 높을수록 해외봉사활동의 교육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응답자들이 했던 활동은 주로 교육봉사, 상호문화이해, 노력봉사 등이 많았고, 기타 조사활동, 환경보호활동, 행정지원, 의료봉사 등을 수행했다(<그림1> 참조). 최근 해외자원봉사에서 직업역량 준비 효과가 강조되면서 자원봉사활동이 얼마만큼 전공지식활용에 도움이 되었는지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번 조사 대상의 경우 전공 활용도는 5점 척도에 평균 3.56으로서 중간 수준에 머물렀다. 비교적 높은 표준편차를 볼 때, 활동내용이나 개인의 준비도에 따라 개인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림1〉 활동내용 (2가지 다중응답)



해외봉사활동을 떠나기 전 준비활동을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해서는 8개 문항에 대해 평균 2.79의 수행도를 나타내 준비도가 낮은 편에 속했지만 개인 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고, 이 사전 준비활동이 실제 현장에서의 자원봉사활동 수행과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평균 4.35의 높은 찬성도를 보였다. 사전 준비도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8개의 세부분항으로 질문하여 그 합계를 사용하였다. A 대학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성격상, 그룹별로 학생들이 수행하게 될 프로그램 활동 준비에 가장 높은 비중이 있었으며, 자원봉사자의 태도 교육이나 봉사프로그램 안내 등이 그 다음을 이었다. 상대적으로 해당 국가에 출국하기 전에 해당국가 출신으로서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미리 만나거나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방문하게 될 해당국가에 대한 문화적 적응 준비를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적었다.

〈그림2〉 사전 준비도



주) “1=전혀 아니다” - “4=매우 그렇다”

〈표2〉 자원봉사 동기

	자원봉사 동기	유효 사례수	평균 (주1)	표준 편차	평균	Cronbach's Alpha
사회적무 동기	사회환원	91	2.14	0.625	1.95	0.8399
	시민으로서의 의무	92	1.84	0.684		
	도덕성	92	1.82	0.710		
	부차도움당연	92	1.92	0.715		
	사회문제해결에도움	96	2.04	0.724		
개인도구 동기	의미있는여가	95	2.31	0.654	2.14	0.6106
	다양한경험	96	2.80	0.426		
	자기개발	93	2.22	0.529		
	자기위로	91	2.07	0.757		
	친구요청	93	1.99	0.617		
	학교장려	91	1.90	0.616		
	부모권유	88	1.55	0.565		

주) “1=동기가 되지 못함” - “3=중요한 동기가 된다.”

그 외 Volunteer21의 <한국인의 자원봉사 및 기부현황 조사>(2005, 2008)에서 사용된 자원봉사 동기 문항을 활용하여 어떤 동기가 자원봉사에 중요하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응답을 얻었다. 자원봉사 동기를 유형화하는 작업은 이미 많이 이루어졌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를 위해서는 이를 크게 단순화하여 두 가지 동기 유형으로 구분

하였다. 하나는 사회의무동기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도구동기이다. 각각 신뢰도는 0.8399와 0.6106로서 높은 편에 속한다.

대학생의 해외봉사활동의 교육적 효과는 크게 글로벌 시민성 증대, 인성의 변화, 직무 역량 계발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Oxfam(1998, 3)은 글로벌 시민성의 핵심적 요소를 지구사회에 대한 지식과 이해, 기술(skills), 그리고 가치와 태도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첫째는 지구사회에 대한 지식과 이해이다. 특히 글로벌 정의와 공정성, 다양성, 글로벌 공동체의 상호의존성,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 등에 대한 이해가 강조된다. 둘째는 기술로서, 비판적 의식, 효과적으로 논쟁할 수 있는 능력, 사람과 사물에 대한 존중 등을 지칭한다. 세 번째는 가치와 태도로서, 자기존중 의식이나 이타심 등을 포함한다. Oxfam의 이 정의는 각각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글로벌 시민성, 직무 역량, 인성 등의 세 가지 효과 유형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단, Oxfam의 정의에서는 태도와 관심 등이 기술, 가치와 태도 두 가지 유형 모두에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혼돈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글로벌 시민성에 글로벌 공동체에 대한 지식과 이해뿐 아니라 관심과 태도도 포함시켰고, 인성은 배려의 마음이나 자기존중감 등의 요소에, 직무역량은 도구적이고 기술적인 요소들에 한정하여 세 가지 유형을 분석적으로 구분하였다.

4. 분석결과

해외봉사에 사용된 문항 총 13개는 내용타당도의 관점에서 크게 글로벌 시민성 효과, 인성 변화 효과, 직무역량 계발 효과 등 세 가지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신뢰도는 0.8316, 0.7622, 0.6307로 나타나 의미 있

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3〉 해외봉사의 효과성

	문항	N	평균	S.D.	Cronbach's Alpha
글로벌 시민성	타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97	3.74	0.46	0.8316
	글로벌 공동체 의식이 생겼다.	97	3.57	0.54	
	세계를 보는 가치관과 의식이 변화되었다.	97	3.57	0.54	
	다음에 또 그 지역에 방문할 기회가 생기면, 훨씬 빨리 적응할 것 같다.	97	3.67	0.49	
	해외 지역과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97	3.61	0.53	
인성	자신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97	3.47	0.58	0.7622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97	3.21	0.69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96	3.41	0.55	
직무역량 (기술)	하나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96	3.38	0.57	0.6307 주2)
	외국어 능력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97	2.81	0.68	
	외국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97	4.06	4.03	
	구성원과의 팀워크를 만들며 외부기관 혹은 외부사람들과 네트워킹 하는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97	3.51	0.56	
	내가 관심있는 전공지식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96	2.60	0.89	

주1) “1=전혀 아니다” ~ “4=매우 그렇다”

주2) 이 경우 척도의 분산이 커서 standardized item alpha를 사용하였음.

〈표4〉 해외봉사 효과 유형별 평균값

	N	평균	S.D.
글로벌 시민성	97	3.63	0.40
인성 변화	96	3.36	0.50
직무역량(기술)	95	3.28	0.94

<표4>에는 세 가지 효과유형별 평균이 제시되었다. 세 가지 효과 유형 중 글로벌 시민성이 3.63으로 가장 높았고, 인성 변화 효과가 3.35로 그 뒤를 이었으며, 직업 역량 계발은 3.2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5>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현지인접촉빈도	1												
2. 전공활용도	.186	1											
3. 만족도	.263 (**)	.209 (*)	1										
4. 사전준비도	.093	.278 (**)	.016	1									
5. 준비효과성평가	.265 (**)	.357 (**)	.392 (**)	.232 (*)	1								
6. 해외체류경험	.036	-.054	.020	.100	.169	1							
7. 해외여행경험	-.169	-.021	-.008	.129	.044	.169	1						
8. 국내외국인접촉유무	-.064	.037	-.081	-.055	-.057	.164	-.098	1					
9. 사회의무동기	.082	.396 (**)	.177	.248 (*)	.360 (**)	.141	.078	-.093	1				
10. 개인도구동기	.272 (*)	.139	.319 (**)	.116	.399 (**)	.144	.243 (*)	-.064	.206	1			
11. 글로벌 시민성	.301 (**)	.260 (*)	.366 (**)	.219 (*)	.509 (**)	.014	.022	.095	.308 (**)	.410 (**)	1		
12. 인성	.328 (**)	.357 (**)	.411 (**)	.142	.433 (**)	-.017	-.025	.072	.309 (**)	.379 (**)	.742 (**)	1	
13. 직업역량	.033	.274 (**)	.202	.244 (*)	.207 (*)	-.090	.086	-.035	.274 (**)	.172	.280 (**)	.255 (*)	1

주) * p < 0.05, ** p < 0.01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표5> 참조), 해외체류경험, 해외여행경험, 국내외국인접촉 유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변수들 간에 상관관

계가 나타났다.

먼저, 실제 자원봉사수행과 관련된 변수들을 보면, 현지인접촉빈도의 경우 전반적인 만족도, 준비효과성평가와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효과면에서는 글로벌 시민성, 인성 변화 등 두 가지 유형에서만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직업역량 계발은 현지인과의 접촉 등 자원봉사활동 과정보다는 준비를 얼마나 치밀하게 구조화하는가와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A 대학 프로그램의 특성상 현지인과의 접촉빈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그렇지 않은 다른 일반 해외봉사프로그램의 경우 현지인접촉빈도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예상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추측된다. 전공활용도의 경우도, 사전준비도, 사전준비효과성평가, 전반적인 만족도와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전공활용을 많이 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 혹은 준비를 많이 할수록 전공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인접촉빈도와 마찬가지로 전공활용도 역시 세 가지 효과변수들과 모두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출발 전 사전준비 단계와 관련된 변수들을 보면, 사전준비정도보다는 사전준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더 많은 변수들과 상관관계가 나타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사전준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해외경험유무 등 모든 변수와 상관관계가 없었던 3가지 변수를 제외한 다른 모든 변수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사전교육의 양과 질을 떠나, 그것이 실제활동수행과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할수록 전반적인 만족도나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사전준비교육이 얼마만큼 실제 봉사활동 수행에 적합하게 맞춤형으로 구성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회의무동기이건 개인도구동기이건 상관없이 자원봉사동기가 강할수

록 사전준비 효과성에 대한 평가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목적의식적으로 해외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동기변수에서 흥미로운 것은, 해외여행경험과 개인도구동기 간에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즉 해외여행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해외여행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개인동기가 더 강하거나, 혹은 개인동기가 강한 사람들이 해외여행 등 다양한 경험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효과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사회의무동기는 세 가지 효과변수들과 모두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개인도구동기는 세 가지 효과변수들 중 글로벌 시민성과 인성과만 정의 상관관계가 있고, 직업역량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표6〉 회귀분석

	글로벌시민성		인성		직업역량	
	B	sig	B	sig	B	sig
현지인접촉	0.052	0.501	0.119	0.203	-0.325	0.205
전공활용	-0.051	0.209	-0.009	0.850	0.136	0.300
만족도	0.216	0.007	0.247	0.009	0.355	0.161
준비도	0.012	0.322	-0.009	0.529	0.067	0.103
사전준비의 효과	0.106	0.109	0.041	0.603	-0.016	0.939
사회의무동기	0.100	0.177	0.102	0.246	0.255	0.304
개인도구동기	0.286	0.029	0.343	0.028	0.313	0.473
상수	1.085	0.014	0.956	0.067	-0.257	0.855
R2	0.426		0.359		0.178	
F	6.789	.000	5.112	.000	1.947	.077
유효사례수주1)	72		72		71	

주) 총사례는 97이었으나, 동기변수 형성과정에서 '모른다' 등 다양한 경로로 결측처리된 것이 있어 유효사례수는 표와 같았다.

효과변수에서 흥미로운 것은, 글로벌 시민성의 경우는 -해외체류경험, 해외여행경험, 국내외국인접촉유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인성 변수는 사전준비정도와 상관관계가 없으

며, 직업역량 변수는 현지인접촉빈도, 전반적 만족도, 개인도구동기와 상관관계가 없었다. 인성면에서 효과를 체감한 사람은 사전준비의 철저성과는 상관없이 본인의 마음가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직업역량의 계발은 활동에 대한 감정적 만족보다는 논리적 사고 계발에 초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 가지 유형의 효과변수들에 어떤 독립변수들이 의미있는 예측변수인지는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표6>에 제시하였다. 글로벌 시민성과 인성 변수 모두에 의미 있는 예측변수는 만족도와 개인도구동기였다.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해외봉사활동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인 것에 반해, 개인도구동기가 글로벌 시민성과 인성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독립변수로 등장한 것은 설명을 요하는 결과이다.

5. 토론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 해외자원봉사가 세 가지 효과 유형 중, 글로벌 시민성 증대, 즉 글로벌 공동체에 대한 지식과 이해, 태도와 가치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그 다음이 자기존중감, 배려심 등의 인성적 변화였고, 직무역량 면에서의 효과가 가장 낮았다. 글로벌 시민성 효과를 예측하는 데 가장 의미 있는 변수는 개인도구동기였는데, 사회의무동기가 아니라 개인도구동기가 글로벌 시민성 증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레버그(Rehberg 2005)는 118명의 스위스 청년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결과, 11%를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타인에 대한 기여, 새로운 것 추구, 자기 자신을 위한 추구 등의 주요 동기유형 중

두개 이상의 동기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면접 결과 이들은 명확하게 “성찰적으로” 자원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성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결과는 여성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선미(2008)의 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레버그는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여 “이타적 개인주의자(altruistic individualists)”라는 말로 상징화하고 있는데, 이는 자원봉사자들이 초기 어떤 하나의 특정한 동기를 가지고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결국은 초기의 동기와는 유형적으로 다른 동기 혹은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초기에는 자원봉사자가 자신이 수행하는 활동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미틀 안에서 해석하지만,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바로 그 의미틀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고 성찰하여 다른 동기와 효과를 찾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강한 사회의무동기를 가진 학생들에게 해외자원봉사는 어떤 효과를 가지는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상관관계 분석에서 개인도구동기에서만 전반적인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사전준비도와 전공활용도는 사회의무동기와만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의무동기는 직무역량과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개인도구동기는 직무역량과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해 보면, 강한 사회의무동기를 가진 학생은 약한 사회의무동기를 가진 학생들에 비해 방문할 지역에 대한 정보나 관심이 많을 가능성이 있으며, 자신의 전공이 해외봉사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그 관련성을 모색하는 데 더 관심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봉사활동 이후 감정적 만족이 특별히 강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강한 개인도구동기를 가진 학생들은 약한 개인도구동기 집단과 비교해 볼 때 전공활용도나 사전준비도가 높지 않은데, 이는 이 집단이 해외봉사활동에 대한 특별한 기대나 체계적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봉사활동의 실제 상황이 자신의 기존 태도와 관심 부족에 대한 성찰을 야기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회귀분

석에서 개인도구동기가 글로벌 시민성뿐 아니라 인성 효과 변수에서도 의미 있는 예측변수로 등장했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개인도구동기를 가진 학생은 해외 현지 상황이나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정보나 관심이 적은 상태에서 해외봉사를 지원했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봉사활동 중에 자신이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면서 인성적 변화를 체험했고, 이를 기초로 글로벌 시민성 증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대학생들이 취업이나 경력, 역량개발 등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도구적인 관심에서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결코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글로벌 정의(global justice)의 관점에서 부정적으로만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그런 개인도구적 동기라도, 동기가 강할수록 해외봉사활동의 실천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관심이나 다문화적 이해, 공동체 의식 등의 글로벌 시민성 증대 효과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는 자신 및 타인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즉 성찰이 전제되어 있다.

글로벌 시민성은 이념이자 곧 실천이다. 글로벌 시민성이 단순하게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이나 단순한 글로벌 소비주의의 확산으로 이해되지 않고, 국가 간, 특히 부국-빈국(Global North-South) 간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 글로벌 공동체 의식을 지향해야 한다고 할 때, 대학생 해외봉사활동은 이러한 글로벌 시민성 교육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 틀림없다. 비록 대학생들이 개인적인 역량개발의 관점에서 도구적으로 해외봉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곧 글로벌 시민성 교육의 관점에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해외자원봉사라는 실천 상황에서는 집합적인 글로벌 시민성과 연대의식이 개인적인 자율성, 자기개발, 책임성 등과 병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1년 10월 11일 접수, 2011년 11월 15일 수정, 2011년 11월 28일 확정)

참고문헌

- 강철희. 2007. “기부 및 자원봉사와 신뢰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3), 5-32.
- 백지훈·류경화. 2009. “스타 해외봉사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사회적 함의: 개도국의 가난에 관한 담론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5(2), 142-178.
- 이선미. 2008. “여성은 왜 자원활동에 참여하는가?: 자원활동 참여동기와 성찰성.” 『젠더와 사회』. 7(2), 213-237.
- 이창호. 2010. “해외봉사활동이 수혜국가 아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캄보디아 빈곤아동들의 자기효능감과 관계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7(3), 213-239.
- Forbes, Kathryn A. 2005. “The Virtues of Volunteering.” *Journal of Accountancy*. Nov., 81-82.
- Jones, A. 2004. *Review of gap year provision*.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London.
- Jung, Jinkyung and Eunsun Kwon. 2011. “Trust development in volunteering: An exploratory study of social trust and volunteer activities in Korea.”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16(1), 157-180.
- Kisby, Ben. 2007. “New Labour and Citizenship Education.” *Parliamentary Affairs* 60(1), 84-101.
- Lewis, D. 2006.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 service: A development perspective.” *Voluntary Action* 7, 13-26.
- Nowicka, M. and M. Rovisco. eds.. 2009. *Cosmopolitanism in practice*. Aldershot: Ashgate, 181-199.
- Offe, Claus. 1999. “How can we trust our fellow citizens?” 42-87, in Mark E. Warren (ed.). *Democracy & Tru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xfam. 1998. *A Curriculum for Global Citizenship: A Guide for Teachers and Education*

- Workers*. London: Oxfam.
- Paxton, P. 2007. "Association Memberships and Generalized Trust: A multilevel model across 31 countries." *Social Forces* 86(1), 47-76.
- Putnam, Robert D. 2000. *Bowling Alone*. New York: Simon & Schuster.
- Rehberg, W. 2005. "Altruistic individualists: motivations for international volunteering among young adults in Switzerland."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16, 109-122.
- Rosenthal, S. Feiring, C. and Lewis, M. 1998. "Political Volunteering from Late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Patterns and predic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54, 471-493.
- Sherradan, M. 2001. *Service and the human enterprise Centre for Social Development*.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and Ford Foundation.
- Simpson, K. 2004. "Doing development': the gap year, volunteer-tourists and a popular practice of develop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16, 681-692.
- Simpson, M. 2004. "Mediating the world: development, education and global citizenship." *Globalisation, Societies and Education* 2, 67-82.
- Smith, Matt Baillie and Nina Laurie. 2011. International Volunteering and development: Global Citizenship and neoliberal professionalisation toda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NS* 36, 545-559.
- Uslaner. 2002. *The Moral Foundations of Tru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ertovec, S. and R. Cohen. 2002. "Introduction: Conceiving Cosmopolitanism." 1-22. in: S. Vertovec and R. Cohen (eds). *Conceiving Cosmopolitanism. Theory, context and prac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ilson, J. and M. Musick. 1999. "Attachment to Volunteering." *Sociology Forum* 14, 243-272.

An Exploratory Research on Overseas Volunteering of University Students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 Citizenship

Chan Ran Kim · Seon Mi Lee

This is an exploratory research on the effects of overseas volunteering by university students. In recent years, overseas volunteering of university students has rapidly increased, but there is hardly any research done to explore its implication and effects. This analysis is based on the survey data obtained from the A university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its overseas volunteering programs in January or July of 2011. The effects of overseas volunteering are measured by three indices: improved global citizenship, improved personality, competence development. The result shows that overseas volunteering affects improved global citizenship most, followed by improved personality, competence development. The result also shows that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 for improved global citizenship is individualistic-instrumental motivation among other variables. It implies that overseas volunteering of university students even with strong individualistic-instrumental motivation can be conducive to global citizenship.

Key words : Overseas Volunteering, Global Citizenship, Personality, Volunteer Motivation